

## 강서미즈메디병원



### 전문성 · 신뢰도 바탕 연구역량 강화 여성 · 어린이 삶의 질 향상 매진

진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여성종합병원으로서 10여년을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미즈메디병원! 특히 강서미즈메디병원은 출산율 저하속에서도 오히려 신생아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취재 전양근



■□ 병실전경  
 □■ 초음파검사



중견의료기관으로서 당당한 면모를 과시하며 미래지향 디지털병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병원은 최근 외래 전체 초음파 18대를 모두 교체하고 64채널 CT를 도입해 설립이념이기도 한 ‘진료수준의 끊임없는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때마침 2001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1.08)을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5년만에 출산율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관계부처 추계결과 2006년도 신생아수가 2005년 43만8062명보다 8000여명 늘어나 합계출산율이 1.08에서 1.1명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현상은 2006년이 쌍춘년(임춘이 두 번)으로 혼인이 많아진 탓이라고는 하나 저출산대책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즈메디에 ‘출산율 반전’ 소식은 낭보 이상의 소중한 가치로 다가온다.

### “여성과 아기의 건강한 삶”

미즈메디병원은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 직원

이 만족하는 병원,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병원’을 설립이념으로 ‘집처럼 편안하게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 연구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 개발, 전파,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초전문적 실력 배양 진력’ 등의 미션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와 진료에 있어 세계적인 여성전문병원,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의 무한 탐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병원 의과학연구소는 줄기세포 파문으로 시련을 겪은 뒤 새 인력과 프로젝트로 새롭게 출발해 생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요실금 치료법 연구 등에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91년 강남에 이어 2000년 강서구에 개원한 미즈메디병원은 故 노경병 박사와 장남 노성일 산부인과 전문의가 2대에 걸쳐 첨단 여성의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병원이다. 80 여명의 전문의와 600 여명의 임직원이 온 힘을 합하여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여성과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간 40여만 명의 내원 환자와 1만 여명의 입원환자, 2만 여건의 수술 및 4000여명의

신생아 분만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전국 5위권)로 많은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

이 병원은 여성과 아기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치료법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다.

### 설립자 노경병 박사

60년 초,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노경병, 이동희 교수(당시 세브란스 병원 동료 교수)는 일찍이 선진국의 앞선 의료환경을 통해 국내 여성암 조기진단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62년 세브란스 산부인과 진찰실 내에 국내최초 자궁암조기진단센터를 개설했으며 이듬해인 63년 제일병원을 설립, '깨끗하고 친절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 미즈메디 모태, 영동제일의원

78년 영국에서 세계최초 시험관아기의 탄생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불임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85년 제일병원 산부인과에 불임클리닉이 개설되었으며, 연세의대를 졸업한 노경병 박사의 장남 노성일 이사장이 여기에 합류한다.

이후, 노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온 '한국 최고의 환자중심 여성전문병원'을 목표로, 91년 강남구 역삼동에 영동제일의원을 개원했다.

설립 당시부터 진료환경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병원의 인테리어'개념을 도입,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한 차원 높은 의료환경을 마련해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국내최초로 여성전문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는 등 여성전문 치료기관의 새 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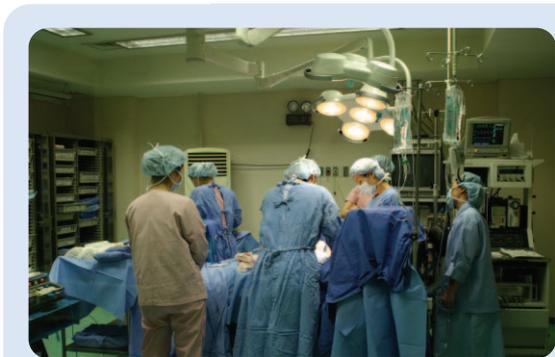
93년 12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한 영동제일병원(현 강남미즈메디)은 클래식음악과 은은한 커피향이 나는 라운지, 4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실내정원 등 내원객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 강서미즈메디 개원

강서미즈메디병원은 최고의 의료시설과 장비로 불임, 분만, 부인암, 폐경기 질환 등 여성질병 전반에 걸친 전문적 치료와 함께 내과, 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를 진료하는 강서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2000년 1월,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평 3000평 규모의 병원으로 개원했다.

이어 2004년 3월 미즈메디 리서치센터를, 2005년 3월 새생명과 어린이들의 보금자리가 된 키즈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현재 병원 본관과 2개의 별관을 포함하여 연건평이 4000여 평에 이른다.

진료면에서는 불임-IVF센터, 부인과 내시경수술센터, 유방센터, 건강증진센터와 갱년기 클리



■ 수술실



■□ 심포지엄  
□■ 소아과진료

닉, 웰빙클리닉, 노화방지클리닉 등을 운영하면서 여성 건강의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003~2004년에 걸쳐 완성된 병원의 디지털화는 SA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ERP(전사적 자원관리), OCS(처방전달), EMR(전자 의무기록), PACS(영상전달)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병원의 모든 정보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병원으로서 그 지도를 먼저 그리고 있다.

지난해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 환자 의무기록에 대해 의사의 자필서명이 기록되도록해 진료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 64채널 CT도입

미즈메디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첨단 3차

원 64채널 CT를 도입, 가동하고 있다.

이 CT는 기존 기기에 비해 64배 이상 빨라 10초 이내에 전신 검사가 가능하고 심장혈관(관상동맥)과 뇌혈관을 비롯한 각종 혈관과 간, 췌장, 대장, 근골격계 등을 실시간에 입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얇은 단면 영상을 획득,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고화질 영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 매해 열리는 미즈메디 심포지움

91년 개원 초부터 시작된 워크숍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연구하는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미국불임학회 등 해외 우수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95년 세계체외수정학회 우수논문상, 97년 미국불임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 고도의 기술력 : 복강경 수술과 불임치료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적출 등을 월 200건 이상하고 있다.

유방센터는 월 1500여명을 진료하는데 시술시 심리적 만족도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

석박사 연구원들로 구성된 시험관아기센터에서는 최신 의료장비로 불임의 원인을 알아내 세계적으로 인정된 최첨단 불임시술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99년 12월에는 영동제일병원 불임 연구팀에 의해 배란유도제 없이 미성숙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아기 시술법이 일본에 기술이전되어 첫 임신이 성공한 후 일본 주요일간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2005년 미즈메디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병원으로 승인되었으며, 2006년에는 제왕절개율이 낮은 병원에 선정됐고 복지부로부터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상병원으로 지정됐다.

**키즈센터, 어린이 눈높이 맞춘 인테리어**

키즈센터(지하2층, 지상6층)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놀이동산 같은 실내 인테리어를 적용, 병원이라기보다 놀이터 같은 공간 이미지 연출을 시도했다.

벽지 대신 동화 같은 벽화를 그려 넣고, 푸른 하늘과 구름을 형상화 한 천정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분산시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통로를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꾸몄다.

키즈센터 소아과는 7명의 의사와 간호사 20명이 하루 500명이상의 외래 환자를 맞는다. 국내에서 여성전문병원이라는 기치를 처음 올린 노성일 이사장에게 키즈센터는 또 다른 외연 확장이다. 그는 키즈센터를 어른의 눈이 아닌 아이들의

수준으로 꾸몄다. 의자 높이, 글자 크기도 모두 그렇다. 아이들을 위한 변기는 장난감처럼 양중맷다. 외벽의 색깔도 알록달록하다. 그가 직접 놀이동산을 둘러보고 분위기를 잡았다고 한다.

한편 이 센터엔 소아과 외에 불임 외래는 3층, 불임 연구실은 4층에 뒤 진료와 검사의 동선을 줄이고, 불임 외래와의 협진이 필요한 비뇨기과는 지하 1층에 배치, 내원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도서관을 의학도서관 겸 환자도서관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신생아출생은 하루 10~12명(아기 동영상 CD 기본) 2군데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함께 있다. 신생아실은 유리창으로 안이 다들여다 보이게 했으며 24시간 보호자 면회가 가능하다.(면회시간을 구애 받지 않게 해 보호자 만족도 높임)

분만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족분만실, 아로마 마사지실 설치했다. 1,2층에 수유실을 뒤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윽한 향이 우리나라는 커피숍을 설치하고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대신 셀프서비스)



■ 키즈센터  
□ 신생아집중치료실



## 실내정원, 시청각시설

건물 중앙에 자연채광이 되고 대나무가 자라는 실내정원(당시엔 생소)을 꾸며 아이들이 들어가 놀 수 있게 하였으며, 실내에 실외정원을 조성한 점은 이색적인 아이디어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연상시키는 CGV와 같은 형태로 시청각 음향기자재를 갖춘 지하강당은 세미나, 원내 교육은 물론 강서구 등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배려하였고 즐기세포 파동때는 이 강당이 임시 기자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친절 교육을 받고 나서 부서별로 추천 받은 직원들이 스스로의 교육훈련 및 연마를 거쳐 병원자체 강사로 나서 교육에 임하고 있다.

## 미즈 문화센터-다양한 산모교육

건물지하에 체육센터를 겸한 미즈메디 문화센터(70,80년대 출생 산모 위한)에선 '요가, 만들기, 모유수유, 소프롤로지 분만(분만예비체험), 분만 가상체험(남편과 함께)' 등 산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150대 동시주차가 가능한 제3 주차장을 신축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봉사활동은 동네 어르신에 대한 이동목욕 등과 100원 모으기 운동(직원 매월 급여서), 이웃사랑 실천 바자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1층 웰빙클리닉에선 노화방지, 비만, 산후체형관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이동목욕

## 연구역량 강화

노성일 이사장은 연구능력이 강한 병원이 미래의 병원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연구를 통해 병원이 발전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국 의료의 근본이 발전한다는 생각이다.

의료의 본질은 아픈 사람을 빨리 낫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신 의료장비에 투자해야 하고, 의사들도 최고를 영입해야 한다. 다른 병원은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비중이 50대 50이지만 미즈메디는 외래환자의 비중이 70%다.

미즈메디 병원은 황우석 박사와 함께 즐기세포 연구를 한 곳으로 최신 의료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불임 시술 등 산부인과 부문에선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일본인 환자만 해마다 2백명을 넘는다.

## 노성일 강서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병원 발전을 통해 산부인과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훌륭한 연구 성적을 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일(황우석 사태 관련)을 많이 겪었지만 변함없이 믿어 주고 성원해준 고객(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 환자 신뢰 보답 더욱 정진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병원이 환자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사회일원으로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이같이 담담하게 말했다.

“어려운 상황(즐기세포 파문과 같은)에서도 미즈메디병원을 체험한 고객은 잊지 않고 찾아주고 계속 성원을 보내는 것이 전혀 흔들림없이 병원 경영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 ‘정직·투명 경영’ 의미 더욱 일깨워

한 두명의 연구원을 황우석 박사에게 파견했었는데 그릇된 연구윤리에 오염돼 잘못 저지른 것을 지금껏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노 이사장은 평소 신조인 ‘정직·투명·윤리 경영’을 마음속에 더욱 아로새기게 됐다.

그는 이번 기회(황우석 사태)를 통해 정말로 병원은 연구비, 세무 등 모든면에서 경영상 투명해야만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

“의료계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의료계)밖의 사회가 투명해졌습니다.

사기나 횡령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가 점차 짜여진 틀속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을 절감합니다.”

노 이사장은 의술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의료계가 아무리 힘들다해도 스스로 투명하지 않고선 ‘의료계가 어렵다’고 호소해도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 투명경영은 의지이자 신념이다.

### 유전자 진단, 세포치료 열중

노성일 이사장은 21세기에 해야할 과제로 유전자 진단 치료, 세포치료(세포에서 나오는 신단백질 물질 등을 활용하는 등)를 꼽았다.

“전공(산부인과학)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의학발전이나 의료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쏟아야겠지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파동으로 미즈메디병원 연구소는 소장을 포함 연구인력 전원이 떠나고 새로 인력을 충원해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NIH(국립보건원) 용역연구비도 중단되는 국면을 맞았지만,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노 이사장이 병원자체자금을 새로 투입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은 그간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로 2005년 모교인 연세의대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 영리법인 채택으로 경쟁력제고

의료의 글로벌 경쟁체제 돌입과 관련 그는 “의료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낙후된 의료계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돌파구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국부가 커짐에 따라 의료(기관)를 영리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시켜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됐다고 설명하였다.



■ CS교육

노 이사장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학발전의 상관관계를 역설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계의 낙후된 진료환경, 개원가의 어려움을 극복(타개)하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출산해소는 사회환경 개선으로부터!

저출산문제에 대해선 인구문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문제로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현재 연간 사교육비만 21조원) 핵심역량을 집중해 ‘경쟁력 있는 아이 하나만을 낳는 추세’로 진단하면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교육의 낭비가 의료의 낭비보다 훨씬 크고 비용구조의 교육이 혁파되어 제대로 틀을 잡지 않는 한 저출산 대책도 별무효과일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은 자동화가 계속 발전해 앞으로 현재의 30% 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같이 교육과 의료(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고용창출)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수가적정화는 의학발전의 바로미터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 발전을 도모해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병원 경영 실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적정수가를 통한 병원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료기관이 사회 발전속도에 발맞춰 육성 발전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병원경영 관련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경우..) 건축비를 무작정 깎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그 업자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같은 논리로) 의료도 적정가격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 사회에 유익한 존재, 先公後私 되새겨

“조금이라도 나라와 사회에 유익한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게 소망입니다. 병원에 모든 것을 다(전재산) 쏟아부은만큼 병원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료제도나 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을 합해 노력할 것입니다.

매사 사적(私的)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묻자 그는 다른사람들은 (일에 열중하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고달프다고 하였다.

노성일 이사장은 황우석 사태후 아쉬움이 있지만 환자진료를 접었다. 황우석 사태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자리 탐하거나 욕심내지 말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는 본업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필요한 곳에 일해야 한다면 일할뿐이라고 덧붙였다. **KHA**